



제 2149호 2020. 8. 15. 성모 승천 대축일

제1독서 : 요한 묵시록 11,19ㄱ; 12,1-6ㄱㄷ.10ㄱㄷ

제2독서 :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5,20-27ㄱ

복 음 : 루카 복음서 1,39-56

발 행 :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

주 소 :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'작은마음'

이메일 : littlemm1@hanmail.net

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



그림_ 김영아 마리아

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,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.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.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.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. “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 보십시오,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. 행복하십니다,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!”

성모님께 드리는



① 만들고 싶은 장미색의 클레이를 준비해요.



② 새끼손톱 크기의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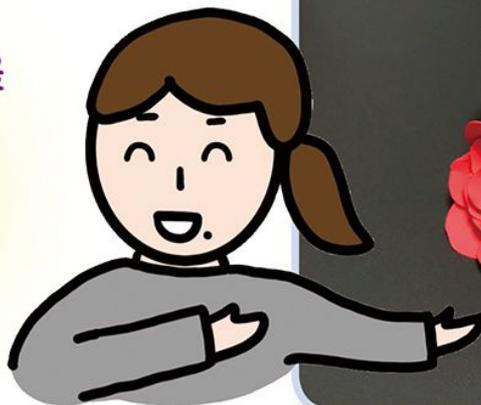


⑤ 첫 번째 꽃잎을 동그랗게 말아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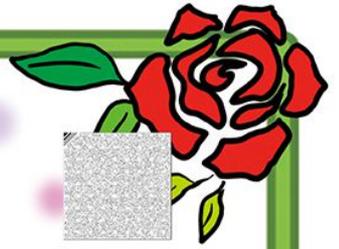


⑥ 그 옆에 다른 꽃잎을 붙여주세요.

예쁘게 장미꽃을
만들어서
성모님께
봉헌해 보아요.



클레이 장미 만들기



③ 장미의 꽃잎 모양이 되도록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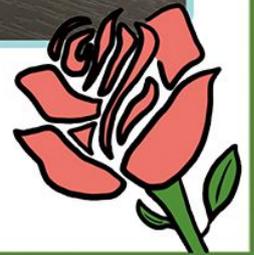
④ 모든 조각을 다 장미꽃잎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.



⑦ 반복해서 꽃잎을 붙여주세요.



⑧ 장미꽃 완성



오늘의 미사

- ★ 화답송 ◎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,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.
- ★ 복음 환호송 ◎ 알렐루야.
○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.
◎ 알렐루야.
- ★ 영성채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,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.



하느님의 뜻



친구들 잘 지냈나요? 오늘은 ‘성모 승천 대축일’ 이에요. ‘승천’은 ‘하늘로 오르다’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지난 5월에 ‘주님 승천 대축일’도 지냈지요.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서 당연히 ‘승천’하는 것이 맞는데, 왜 성모님도 승천하셨을까요? 궁금하지 않아요? 우리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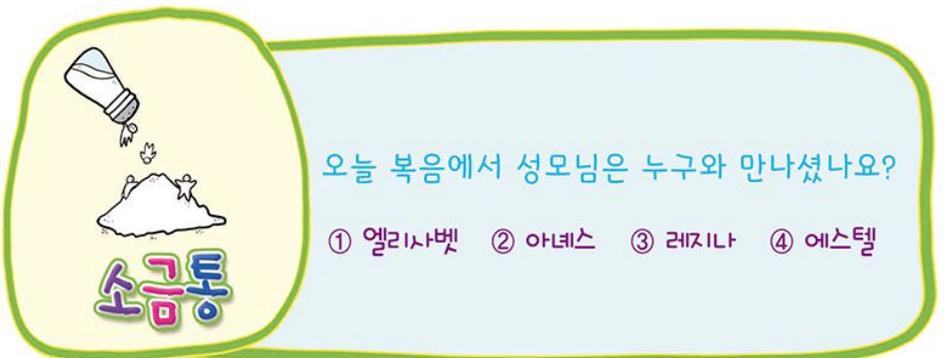
13지구 성현동 성당
박재득 테오도로 신부님

그 답은 바로 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. 성모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고를 듣고 바로 길을 떠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해요. 왜냐하면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확실히 믿을 수 없었고 겁도 났기 때문이지요.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데, 늦은 나이까지 아기를 가지지 못했지만,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를 듣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. 이렇게 성모님과 엘리사벳은 같은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고, 두 사람은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.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“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.”라고 말하게 되는데, 이를 통해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. 그 후 성모님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늘 기도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. 이러한 모범 덕분에 성모님은 하늘로 불러올리심이라는 선물을 받게 돼요.



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

조금 이해가 되었나요?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고 따를 때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. 우리 친구들도 성모님처럼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꼭 하느님께 선물을 받는 친구들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해요.



♥ 똑똑똑! 예수님, 우리 왔어요. ♥